

영 국

□ FY2012-13 : 2012년 4월 ~ 2013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²²⁾, Cm 8231, 2011. 11. 29 OB R²³⁾,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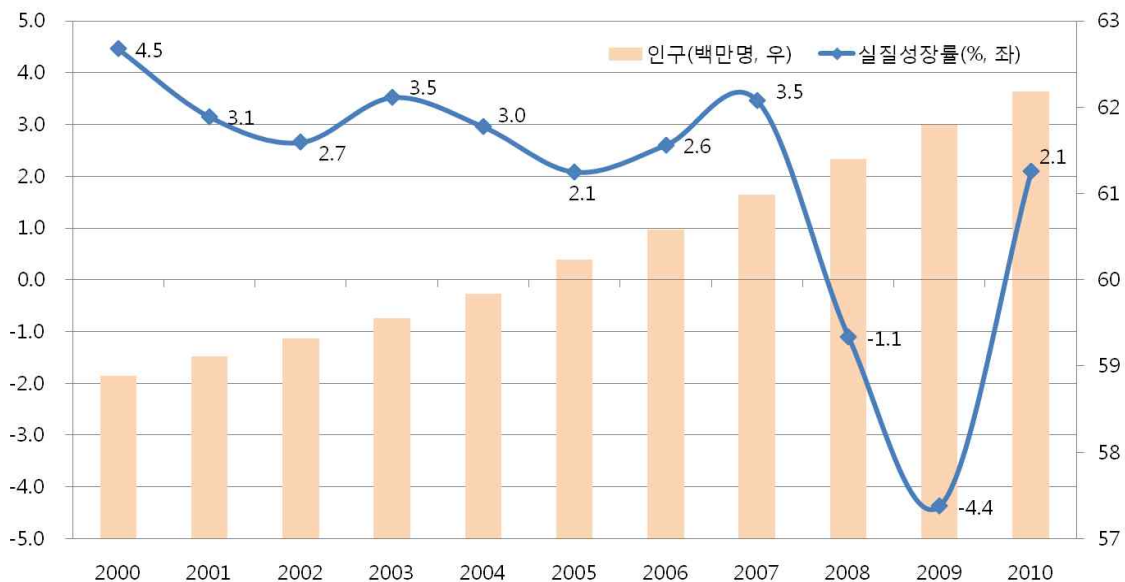
□ 환율 : 1파운드 = 약 1,775.9원 (2011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0년 경상GDP 2조 2,208억 달러(우리나라 약 1.6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0년 기준 62.8%(우리나라 102.0%)

□ 인구 : 6,218만명(2010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22) 사전예산안(Pre-Budget Report)을 대체하여 2011년부터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Report)와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전망보고서(Economic and fiscal outlook)를 함께 발표함. 이하 예산 기초 및 예산안 내용 등은 가을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23)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지속되는 유로존의 위기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인해 201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11.3월) 2.5%에서 0.7%로 하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2-13의 공공부문 재정적자(순차입)는 GDP 대비 7.6%로 전년대비 0.8%p 개선될 전망
- (국가채무) 2013.3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 규모는 GDP 대비 73.3%로 전년보다 5.8%p 증가

◇ 예산기조

- FY2012-13의 예산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Protecting the economy)를 비롯하여 경제성장(Building a stronger economy for the future)과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세입 및 지출

- (세입) FY2012-13 경상세입은 GDP 대비 37.7%로 전년보다 0.1%p 감소
 -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침체 및 소득감소, 유가하락 전망 등으로 2011.3월 예산안 시점에 비해 253억파운드 감소한 5,944억파운드로 전망
- (지출) FY2012-13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0.9%p 하락한 45.3%로 전망
 - ‘11.3월 예산안 전망보다 약 57억파운드 감소한 7,145억파운드 규모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FY2011-12 ~ FY2016-17까지 총 5,29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근로소득보전세제 물가연동계획 취소, 해외개발원조금 축소로 FY2012-13에 약 17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 (경제성장) FY2012-13 ~ FY2014-15까지 약 47억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도입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1. 03. 22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 승인	재정동향 통권 6호
2011. 03. 23	FY2011-12 예산안	재정동향 통권 6호
2011. 03. 23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전망보고서	재정동향 통권 6호
2011. 04. 26	FY2011-12 본세출예산안	재정동향 통권 6호
2011. 07. 13	FY2009-10 결산요약보고서	재정동향 통권 7호
2011. 07. 13	예산책임청(OBR) 장기재정전망보고서	재정동향 통권 7호
2011. 11. 29	FY2012-13 가을보고서	-
2010. 11. 29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전망보고서	-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지속되는 유로존의 위기와 세계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내수 침체로 인해 2011~2012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
 - 2013년 이후에는 민간투자 상승 등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표 VI-1> 2011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안 (2011.03)	1.7%	2.5%	2.9%	2.9%	2.8%
가을보고서 (2011.11)	0.9%	0.7%	2.1%	2.7%	3.0%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1년 4분기에 4.6%까지 상승하였다가 상대적 인 부가가치세(VAT) 상승 둔화 등으로 2012년 2.4%로 감소
 - 2013년 4분기부터 목표치인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실업) 2011년 실업률은 8.1%로 3월(8.9%)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2년 전망은 8.7%로 3월 전망(8.1%)에 비해 다소 증가함
 - 경제성장과 민간부문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청년실업이 상승하여 2013년까지 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4년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6.2%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함

<표 VI-2> 영국 경제전망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질GDP 성장률(%)	1.8	0.9	0.7	2.1	2.7	3.0	3.0
- 민간소비	0.7	-0.7	0.1	0.7	1.4	1.7	1.8
- 민간투자	0.1	-0.1	0.6	0.8	0.9	1.3	1.4
- 정부소비 및 투자	0.4	0.3	-0.3	-0.5	-0.5	-0.7	-0.7
- 순무역	-0.8	1.2	0.3	0.6	0.3	0.2	0.1
소비자물가(CPI Q4)	3.4	4.6	2.4	2.0	2.0	2.0	2.0
실업률(ILO)	7.9	8.1	8.7	8.6	8.0	7.2	6.2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Report(2011.11), Table 1.1, C.1에서 발췌

나. 재정전망

- (세입, 세출) FY2015-16까지 경상세입의 GDP 비중은 약 38% 수준을 유지하고, 총관리지출(TME)²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16-17에 GDP의 39%를 기록할 전망
 - FY2012-13 경상세입은 GDP 대비 37.7%로 전년보다 약 0.1%p 감소하였으나 전망기간(~FY2016-17)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 FY2016-17까지 경상세입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꾸준히 증가
 -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 등 경기회복으로 2014년 이후 인지세 증가 전망
 - FY2012-13 64억파운드에서 FY2016-17에 114억파운드까지 증가
 - 재정건전화 계획 등으로 FY2012-13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0.9%p 하락한 45.3%로 전망
 - 총관리지출(TME)의 감소는 대체로 부처별 지출한도(DEL) 중 경상지출 감축에 기인함
 - 다만 FY2013-14부터 경상 연간관리지출(AME) 중 사회보장지출이 감소하

24)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은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과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로 구성.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 성격의 지출로 AME와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여 FY2016-17에는 FY2012-13보다 GDP 대비 약 1.4%p 감소 전망

-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등 201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지출 감축계획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자) FY2012-13의 공공부문 재정적자(순차입)는 GDP 대비 7.6%로 전년 대비 0.8%p 개선될 전망이며, FY2016-17까지 GDP 대비 1.2%로 감소

- FY2012-13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1.3월 전망치에 비해 약 1.4%p 상승하였으며, FY2013-14와 FY2014-15의 경우 2%p 상향 전망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²⁵의 기준지표인 경기조정 경상수지는 FY2012-13에 GDP 대비 3.9% 적자로 예측
 - 목표기간(five rolling year)인 FY2016-17에 GDP 대비 0.5% 흑자로 전환될 전망
 - 2011.3월 예산책임청(OBR)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시점을 목표기간보다 1년 앞당긴 FY2014-15로 전망한 바 있음
-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FY2012-13년 GDP 대비 7.6%로 전년대비 0.8%p 감소
 - 재정적자는 꾸준히 감소하며 FY2015-16에 협약 기준인 3% 달성 전망
 - FY2012-13 재정적자는 2011.3월 예산안 전망치에 비해 약 1.4%p 상승

□ (국가채무) 2013.3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 규모는 GDP 대비 73.3%로 전년보다 5.8%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공공부문 순부채(PSND)는 2015.3월 기준 GDP 대비 78.0%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의 보조 목표를 충족함
- 안정 및 성장협약 기준인 일반정부 총채무는 FY2012-13에 GDP 대비 90.1%이며, FY2014-15에 최고치인 93.9%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25)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는 2010.5월 연립정부 수립 이후 긴급예산안(2010.6)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책임 및 감사법 2011(2011.3월 승인)의 규정에 의거한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명시되어 있음.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준 목표 : 향후 5년 이내에 경기조정 경상수지(cyclically-adjusted current balance) 균형 달성
- 보조 목표 : FY2015-16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PSND) 추세가 감소로 전환되도록 함

- (참고) 2011.11월 현재 영국은 유럽국가 중 유일하게 신용 등급이 개선되었으며 국채금리는 2%대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표 VI-3>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 GDP 대비 %)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세입	37.3	37.8	37.7	37.7	37.7	37.7	37.8
총관리지출(TME)	46.6	46.2	45.3	43.7	42.2	40.5	39.0
공공부문 순차입	9.3	8.4	7.6	6.0	4.5	2.9	1.2
경기조정 순차입	7.1	6.4	5.5	4.0	2.8	1.7	0.6
기초수지	-6.5	-5.4	-4.9	-3.2	-1.7	0.0	1.6
경상수지	-6.7	-6.5	-6.0	-4.7	-3.3	-1.8	-0.1
경기조정 경상수지 ¹⁾	-4.5	-4.6	-3.9	-2.7	-1.6	-0.6	0.5
공공부문 순부채 ²⁾	60.5	67.5	73.3	76.6	78.0	77.7	75.8
재정적자 ³⁾	9.5	8.4	7.6	6.1	4.6	3.0	1.3
경기조정 재정적자 ³⁾	7.3	6.4	5.5	4.0	2.9	1.8	0.7
국가채무 ⁴⁾	76.5	84.2	90.1	93.1	93.9	92.6	89.7

주: 1)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기준지표

2) 3월 말 기준. 재정건전화 목표의 보조지표

3)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순차입

4)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채무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 Report(2011.11), Table C.6에서 발췌

2. 예산기조

- FY2012-13의 예산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Protecting the economy)를 비롯하여 경제성장(Building a stronger economy for the future)과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재정건전화) 금융·유로 위기와 물가상승충격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도모
 -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등 추진
 -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와 기업활동 지원, 교육 투자 확대와 주택경기 부양 등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공정성)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금융부문 규제 강화, 청년 취업 장려 등의 정책 시행

- 가을보고서에서 도입한 정부정책의 총재정효과는 FY2012-13에 약 5,500만파운드 확대
 - 경상지출에서 약 9억파운드의 재정절감 효과를 예측하고 있으나, 세입정책으로 약 3억파운드의 세수가 감소하고 인프라 투자 등 자본지출은 6억 6,000파운드 확대
 - FY2015-16과 FY2016-17에는 각각 약 83억파운드, 151억파운드의 재정감축 효과 예상
 - 2010년 중기재정계획 기간의 지출감축 비율을 적용한 예측치

<표 VI-4> 2011년 가을보고서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조세정책	-35	-305	+145	+130	+20	+15
지출정책	0	+250	-280	+90	+8,290	+15,105
경상지출	0	+910	+1,175	+1,735	+8,290	+15,105
자본지출	0	- 660	- 1,455	- 1,645	0	0
총 정책효과	-35	- 55	- 135	+220	+8,310	+15,12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가계 및 기업 지원 세제정책 등으로 FY2012-13에 총 3억파운드의 세수 감소
 - 세입감소는 대부분 연료세 인상 연기에 따른 것으로 FY2012-13에 약 10억 파운드 감소효과가 나타남
 - 2012.1월부터 리터당 3.02펜스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상시점을 8월로 연기하고, 동년 8월에 계획된 연료세 인상분을 취소
 - 소규모기업의 비거주재산세 감면제도(Small business rate relief)를 2012.10월부터 6개월간 연장 적용하여 FY2012-13에 약 2억파운드의 세입 감소
 - 한편 고용주들의 연금기여금 공제 제한과 은행세(Bank Levy) 세율 인상을 통해 FY2012-13에 약 7억파운드의 세입 증가 전망
 - 은행세(Bank Levy) 세율은 0.075%에서 2012.1.1일부터 0.088%로 인상
 - 고용주들의 자산담보부 연금기여금(Asset-backed pensions contributions)에도 적용되던 공제를 실제 지출액을 근거로 엄격히 적용

<표 VI-5>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연료세 : 1월 인상 연기, 8월 인상 취소	-375	-975	-825	-850	-875	-925
자산담보부 연금기여금 공제제한	+340	+450	+450	+450	+450	+450
은행세(Bank Levy)	0	+280	+310	+310	+315	+325
자본취득세 공제한도 동결	0	0	+25	+25	+25	+30
항공여객세 인상	0	0	+5	+5	+5	+5
소규모기업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감면 확대	0	-210	+5	0	0	0
비거주재산세 납부연기	0	-85	+45	+40	0	0
기후변화세 감면 확대	0	0	-15	-20	-20	-20
기업투자촉진 세제감면제도 등	0	0	-50	-25	-20	-20
공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0	-25	-50	-75	-100	-125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자본공제	0	-25	-40	-25	-5	-
예술·역사 사업 등에 대한 공제 확대	0	-15	-15	-15	-15	-15
총 세입정책 효과 ¹⁾	-35	-305	145	130	20	15

주: 1) 세액공제의 소득보전요소(negative tax element)를 포함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2.1에서 발췌

- 2011.3월 예산안 시점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침체 및 소득감소, 유가 하락 전망 등으로 FY2011-12 이후의 경상세입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됨
 - FY2012-13의 총 경상세입은 253억파운드 감소한 5,944억파운드로 전망
 - FY2015-16의 경우 410억파운드 감소한 6,935억파운드 규모
 - FY2012-13 세입전망은 2011.3월 전망에 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소가 두드러짐
 - 법인세 67억파운드, 소득세 59억파운드, 부가가치세 33억파운드 감소
 - 그 외 연료세 9억파운드, 인지세 5억파운드 등 감소

<표 VI-6> 경상세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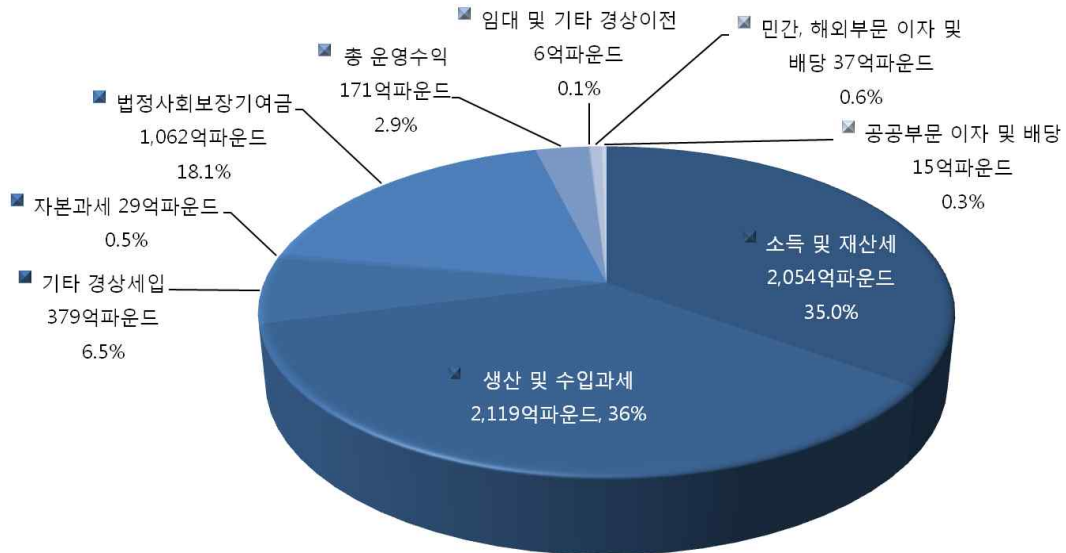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소득세(세액공제 포함)	153.2	155.5	159.8	170.3	181.7	194.8	208.3
pay as you earn	130.5	132.1	134.5	142.8	152.7	163.9	175.9
self assessment	22.1	23.8	25.8	26.7	28.3	30.4	31.7
소득보전세제 (negative income tax)	-5.5	-4.8	-4.2	-4.3	-4.3	-4.3	-4.2
NICs	97.7	102.4	106.2	110.6	117.0	124.5	132.4
VAT	86.2	97.1	100.2	104.1	108.8	113.6	118.6
법인세	43.0	44.1	43.6	43.1	43.8	44.9	48.6
onshore	35.7	34.7	34.9	35.3	36.7	38.9	42.3
offshore	7.3	9.4	8.7	7.8	7.2	6.0	6.3
법인세 세액공제	-0.9	-0.9	-0.9	-1.0	-1.0	-1.0	-1.1
석유세	1.5	1.8	1.7	1.6	1.5	1.2	1.0
연료세	27.3	27.0	27.3	28.4	29.4	30.7	31.9
비거주재산세	23.6	24.5	26.3	28.0	29.1	29.5	31.1
카운슬세	25.7	25.9	26.1	27.6	28.7	29.8	31.0
VAT 환급(refunds)	13.3	14.0	14.5	14.5	14.3	13.9	13.6
자본취득세	3.6	4.6	4.1	4.4	5.2	6.1	7.0
상속세	2.7	2.9	2.9	3.0	3.1	3.3	3.5
인지세	6.0	6.0	6.4	7.5	9.0	10.2	11.4
인지세(on shares)	3.0	3.0	3.1	3.3	3.5	3.8	4.1
담배세	9.1	9.6	9.8	10.0	10.1	10.3	10.6
산업용주정(spirits)세	2.7	2.8	2.9	3.0	3.2	3.3	3.5
와인세	3.1	3.3	3.6	3.9	4.2	4.5	4.9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7	3.8	3.9	3.9	4.0	4.0	4.1
항공여객세	2.2	2.6	2.8	2.9	3.2	3.4	3.8
보험료세	2.5	2.9	2.9	3.0	3.0	3.1	3.2
기후변화세	0.7	0.7	0.8	1.4	1.8	2.1	2.5
기타 국세(HMRC taxes)	5.9	6.1	6.4	6.7	7.0	7.2	7.5
자동차세	5.8	5.8	5.9	5.9	5.9	5.9	5.9
은행원천세 (bank payroll tax)	3.5	0.0	0.0	0.0	0.0	0.0	0.0
은행세(bank levy)	0.0	2.1	2.7	2.7	2.8	2.8	2.9
Licence fee receipts	3.1	3.1	3.1	3.2	3.2	3.2	3.2
환경부담금	0.5	1.7	2.0	2.6	2.9	3.2	3.6
EU ETS 경매세	0.0	0.3	0.7	1.8	1.9	1.9	2.0
기타 조세	6.0	6.4	6.8	6.9	7.4	7.4	7.4
National Accounts taxes	528.9	554.1	571.3	599.0	630.5	663.6	702.4
EU 부담금 공제	-5.3	-5.3	-5.6	-5.9	-6.2	-6.4	-6.7
이자 및 배당	2.4	3.1	4.2	5.1	6.8	9.0	11.3
총운영수지	25.1	24.4	25.5	26.4	27.4	28.3	29.3
기타수입	0.2	-0.8	-0.9	-1.0	-1.0	-1.1	-1.1
총 경상수입	551.4	575.5	594.4	623.6	657.4	693.5	735.2
UK 석유가스 세입	8.8	11.1	10.5	9.4	8.7	7.2	7.3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1. 11), Table 4.7

- FY2012-13 일반정부 기준의 경제유형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생산 및 수입 과세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총 경상세입 중 소득 및 재산세 35%,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8.1%로 예측

[그림 VI-1] FY2012-13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자료: OBR, Fiscal Supplementary Table AS11(2011.11.29), Table 2.23

나. 세출

- 가을보고서의 지출정책으로 FY2012-13 약 2억 5,000만파운드의 재정절감 효과 예상
 - FY2012-13의 경우 경상지출에서 약 9억파운드의 재정절감이 예상되며, 자본 지출은 약 7억파운드 확대
 - FY2013-14 ~ FY2014-15까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FY2013-14에는 약 3억 파운드의 재정확대효과가 나타나고, FY2014-15에는 약 1억파운드의 재정절감에 그침
 - FY2015-16과 FY2016-17의 경우 FY2014-15까지 적용된 지출감축 비율 0.9%를 가정하여 FY2015-16에 약 83억파운드, FY2016-17에 약 151억파운드 규모의 지출절감 예상

□ 지출정책별 재정효과

- (재정건전화)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근로소득보전세제 물가연동계획 취소, 해외개발원조금 축소로 FY2012-13에 약 17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 각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 참고
- (청년취업) FY2014-15까지 총 9억 4,000만파운드 규모의 청년층 훈련계약제도(Youth Contract) 도입
 - 18~24세까지 청년층에 대한 민간부문의 고용유인을 제공
 - 연간 5,000만파운드를 16~17세의 취업 취약(disadvantaged) 청소년의 교육·훈련에 투자
- (영유아보호) FY2014-15까지 2세 이하의 취약 아동에 대해 주 15시간의 무상교육 및 보호 제공
 - FY2014-15에 3억 8,000만파운드 규모로 지원되며, 권한이양지역에는 바넷(Barnett) 공식²⁶⁾에 따라 재정지원
- (가계지원) 2012년부터 철도운임의 연간 인상률을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s Index) 초과 1% 이내로 제한하여 FY2012-13 ~ FY2014-15까지 약 3억파운드의 재정지원 효과 예상
- (에너지) 최저탄소가격제(Carbon price floor)의 간접비용에 대해 FY2014-15까지 총 1억파운드 추가 지원
 - 전기비용 등에 대해 지원되며, 보상기준은 국가보조(state aid) 규칙에 의함
- (과학)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지원 등 연간 3,000만파운드의 재정지원
- (인프라) FY2012-13에 약 7억 6,000만파운드, FY2014-15에 약 21억 4500만파운드 투자
 -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 참고

26) 바넷 공식은 (인구비율) × (중앙부처 계획지출 변화량) × (권한이양행정부가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기능 비율)으로 각 권한이양행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 인구비율의 반영 기준은 중앙정부 부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범위에 따라 잉글랜드 인구대비 비율, 잉글랜드와 웨일즈 인구대비 비율, 영국 전체 인구대비 비율 적용.

<표 VI-7>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지출	0	+910	+1,175	+1,735	+8,290	+15,105
자녀세액공제 인상계획 철회	0	+975	+955	+1,020	+995	+995
근로세액공제 동결	0	+265	+290	+275	+275	+280
공공부문 임금인상 제한	0	+75	+600	+1,075	-	-
해외개발원조 축소	0	+380	+265	+525	-	-
청년층 훈련계약제도 도입	0	-365	-310	-265	-	-
영유아 보호지원	0	-85	-240	-455	-	-
철도요금 인상률 제한	0	-105	-105	-135	-	-
최저탄소가격제 비용 지원	0	0	-40	-60	-	-
과학분야 지원	0	-30	-30	-30	-	-
자본지출	0	-660	-1,455	-1,645	0	0
인프라 투자재원 ¹⁾	0	-760	-1,785	-2,145	-	-
Reserve reprofiling	0	+100	+330	+500	-	-
총 지출정책 효과	0	+250	-280	+90	+8,290	+15,105

주: 1) 인프라 투자재원의 세부내역은 <표 VI-10> 참고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2.1에서 발췌

- FY2012-13의 총관리지출은 2011.3월 예산안 전망보다 약 57억파운드 감소한 7,145억파운드 규모로 예측
 - OBR은 2011.3월에 비해 물가상승률(CPI) 및 실업률, 인구 증가 전망 등으로 정부지출이 약 30억파운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반면 국채수익률 감소와 기타 부처별 지출감축 등으로 약 84억파운드, 가을 보고서 정책 도입으로 약 2억파운드의 지출이 감소함
 - FY2011-12에 비해서는 약 120억파운드(1.7%) 증가
 - 전년에 비해 자본지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상지출 중 부처별지출한도 (DEL) 약 15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 약 128억파운드 증가

<표 VI-8>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경상지출							
자원 DEL	326.3	326.7	328.2	330.9	329.7	326.1	325.2
자원 AME	303.2	325.7	338.5	346.8	360.5	374.8	386.7
사회보장급여 ¹⁾	168.5	175.0	182.8	183.6	187.6	193.1	198.3
세액공제 ¹⁾	25.2	27.0	27.8	28.4	28.8	29.6	30.3
순공공서비스연금	5.6	8.4	9.9	10.5	11.6	12.5	13.5
국가복권	0.8	0.9	0.9	0.9	0.9	1.0	1.1
BBC 내국 서비스	3.4	3.7	3.5	3.4	3.7	3.6	3.7
금융시장 개입 관련 수수료	-2.5	-2.2	-0.7	-0.3	-0.2	0.0	0.0
기타부처지출	0.3	0.6	0.8	0.6	0.4	0.5	0.5
EU분담금	6.8	5.5	6.5	7.0	7.8	7.0	6.1
지방재정(Locally-financed) 지출	22.4	26.2	26.8	28.1	29.1	30.0	30.6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42.8	47.6	47.1	50.5	56.1	61.7	65.5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5.2	16.3	17.1	17.8	18.5	19.2	19.8
단용(single use) 군사지출	5.4	6.4	5.8	5.7	5.2	5.4	5.7
환경부담금	0.6	1.0	1.4	1.8	2.2	2.6	3.3
기타 회계 조정	-2.5	-2.4	-3.8	-3.7	-3.6	-3.4	-3.4
공공부문 경상지출	629.5	652.4	666.7	677.7	690.2	701.0	711.9
자본지출							
자본 DEL	43.9	36.7	35.7	34.0	35.6	35.8	37.3
자본 AME	15.1	13.4	12.1	11.4	10.6	9.8	9.5
국가복권	0.4	0.5	0.6	0.6	0.6	0.6	0.6
기타 자본지출	0.5	-8.3	0.0	0.4	0.4	0.4	0.4
지방재정 지출	6.5	14.2	4.9	4.5	4.1	3.3	3.0
공기업 지출	8.0	8.3	8.0	8.0	7.8	7.8	7.7
회계 조정	-0.2	-1.4	-1.4	-2.1	-2.2	-2.3	-2.3
공공부문 총투자	59.0	50.2	47.9	45.4	46.2	45.7	46.8
감가상각 공제	-20.4	-21.5	-22.6	-23.5	-24.4	-25.2	-26.1
공공부문 순투자	38.6	28.6	25.2	21.9	21.8	20.4	20.7
총관리지출 ²⁾	688.5	702.6	714.5	723.1	736.4	746.6	7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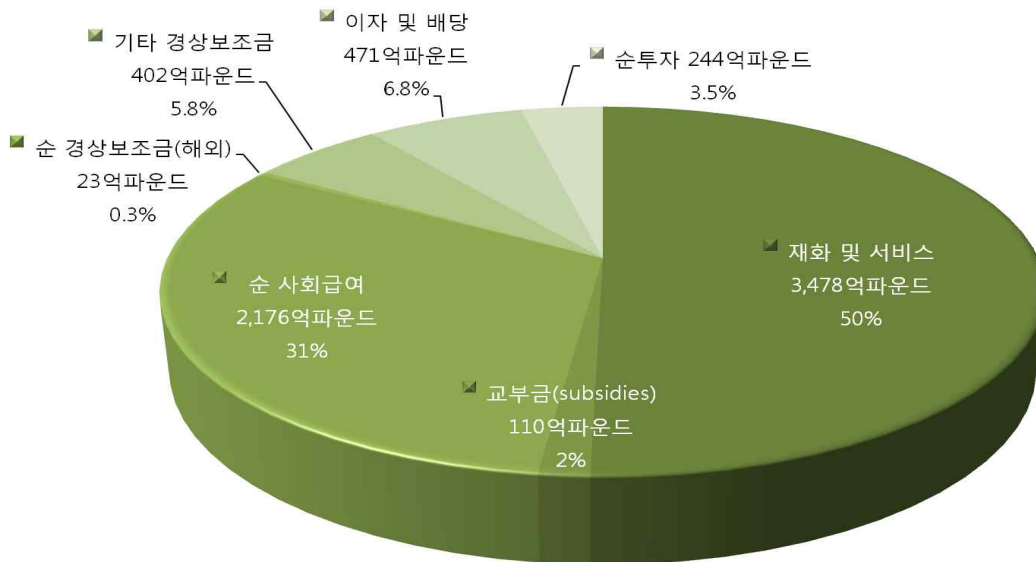
주: 1) FY2010-11 ~ FY2014-15까지 이동수당과 구직수당은 사회보장급여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에 포함

2) 총관리지출은 공공부문 경상지출, 공공부문 순투자, 공공부문 감가상각의 합계(한시적 금융시장개입 효과 제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1. 11), Table 4.18

- FY2012-13의 일반정부 기준의 지출규모를 비교하면 경상지출 중 재화 및 서비스 지출과 순 사회급여(social benefit)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자본지출인 순투자 규모는 244억파운드로 전체 지출의 3.5%에 불과

[그림 VI-2] FY2012-13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규모



자료: OBR, Fiscal Supplementary Table AS11(2011.11.29), Table 2.23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FY2011-12 ~ FY2016-17까지 총 5,29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FY2012-13에만 60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예상
 - 600억중 370억은 지출삭감에서, 230억은 세수확대를 통해 달성할 계획
 - 재정건전화 규모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12-13에 약 60% 수준
 - FY2016-17에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현 정부(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집권초기에 재정건전화 규모에서 세입과 지출의 비중을 2:8로 설정하겠다고 표명한바 있음

<표 VI-9>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 총 규모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재정건전화 총 규모	42	60	85	107	130	147
지출	22	37	56	77	100	116
세입	20	23	29	30	30	31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53	62	66	72	77	79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1.4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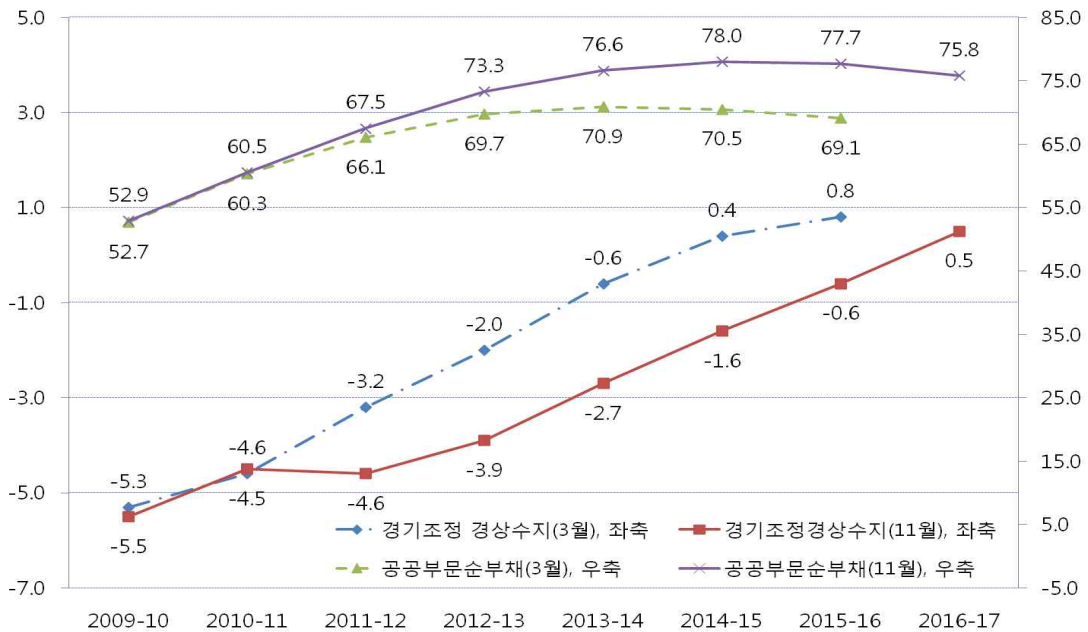
□ 가을보고서에서 도입된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 (연금) 2026.4월 ~ 2028.4월까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
 - FY2026-27 ~ FY2035-36까지 현재가치로 600억 파운드 절감
 - 2010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6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
- (공공부문 임금) 공공부문 임금동결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2년 동안 공공부문 임금인상을 평균 1%로 억제
 - FY2014-15까지 임금상승률을 총 2%로 제한하여 총 17.5억파운드 절감
- (세액공제) FY2012-13부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계획 취소
 -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요건(child element)에 적용될 예정이던 물가상승 초과 110파운드 지급계획 철회
 - 부부 및 편부모요건에 대한 근로세액공제 동결
 - FY2012-13 ~ FY2016-17까지 연간 12 ~ 13억파운드 절감
- (해외원조) 해외개발원조 규모를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에 따라 축소
 - 2012년 총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의 0.56%, 2013년 이후 0.7%

□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에 따라 균형재정 목표 달성은 2011.3월 전망 시점에 비해 2년 후인 FY2016-17로 예측

-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기준시점인 FY2016-17에 경기조정 경상수지가 GDP 대비 0.5% 흑자로 전환될 전망
- 2011.3월 전망과 2011.11월 전망의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VI-3] 2011 예산안과 2011 가을보고서의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1.3 & 2011.11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FY2012-13 ~ FY2014-15까지 약 47억파운드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도입
 - FY2015-16부터 적용되는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기간에 국가 인프라 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1) 중 50억파운드의 자본투자 추진
 - 영국(UK) 연기금에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에 대한 협약 체결
 -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10억파운드 증액, 권한이양 지역(devolved administrations)에는 바넷(Barnett) 공식에 따라 재정지원
 - 2012.4월부터 투자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제공하는 기업투자촉진 세제감면제도(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개시

- 2013년에 대규모 기업의 R&D 투자 장려를 위한 추가 세액공제('above the line' tax credit) 도입
- 국가대출보증제도(National Loan Guarantee Scheme)를 도입하여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제공
-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에 추가 재원 배정
- 신축 주거시설에 대한 모기지 금융 지원 확대 등

<표 VI-10> 인프라 투자 지출 규모

(단위 : 백만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교육	0	-345	-565	-515
추가 100개의 무상학교	0	0	-355	-355
학교시설에 대한 추가재원투입	0	-345	-210	-160
환경(Green Deal)	0	-30	-175	0
성장	-110	-295	-605	-865
지역성장기금 추가 재원 투입	0	-70	-400	-720
과학 재원	0	-100	-60	-40
R&D 투자 등 개혁 재원	0	-25	-25	-25
부동산	-500	-310	-210	25
철도	-185	-15	-15	-60
도로	-100	-75	-500	-775
교통	-25	0	0	0
총 인프라 투자 지출	-920	-1,070	-2,070	-2,195
가을보고서 정책 지출	0	-760	-1,785	-2,145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1(2011.11), Table 2.3에서 발췌